

# KRIVET Issue Brief

2014

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강일규 | 발행일 2014년 9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59호

## 외국어, 적절한 취업스펙인가?

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원,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는 208만 4천 원으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남.
-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일자리와 중시하지 않는 일자리간 임금 격차는 대학 서열이 낮을수록 확대되어 1.13배(1~10위) → 1.17배(11~20위) → 1.20배(21위~30위) → 1.23배(31~40위) → 1.24배(41위 이하)임.
- 4년제 대졸자 정규직 근로자 중 현 일자리 취업에 인성이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.7%이며, 전공(55.8%), 학력(52.8%), 외국어 능력(35.1%), 학벌(33.9%) 순으로 나타남.
-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직장에서는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고, 업무에서도 외국어 활용도가 높아 채용도구로서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.

### 01 분석의 필요성

#### | 취업준비생들이 영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음.

- 국제화, 세계화로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외국어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.
  - 대학교 3~4학년의 경우 외국어 공부 시간이 전공 공부 시간보다 두 배 더 많고, 외국어 공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상황임.<sup>1)</sup>
  - 토익의 경우 2013년 응시인원이 207만 명 이상이고, 그중 21~30세 응시자는 76.8%, 취업을 위해 응시한 수험생은 49.8%임(YBM 한국 TOEIC 위원회, 2014.2.25.).
- 이러한 현상은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수 있으나 실제로 직장에서 필요한 외국어 수준이나 활용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음.
  - 이 글에서는 외국어가 기업의 채용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,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어떠한 지를 분석함.

### 02 분석 자료

#### | 분석 자료: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(2011GOMS1)

-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『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(2011GOMS1)』 1차년도 조사자료
- 분석 대상: 2011학년도(2010년 8월 및 2011년 2월)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교육대학 졸업자를 제외한 정규직 임금근로자 6,579명(가중치 적용 후 150,669명)
  - 직장별 비율은 중소기업 53.1%, 대기업 23.7%, 법인단체 6.9%, 정부기관 4.7%, 외국인 회사 4.0%, 공기업 3.8%, 교육기관 3.3%, 연구기관(국립·민간) 0.2%, 무소속 및 기타 0.2%로, 연구기관과 무소속 및 기타 직장은 응답자 수가 적어 직장별 분석에서는 제외
- 분석 방법
  - 취업요인별 중시 비율: 12개 항목(학력, 학벌, 학점, 자격증, 자격증의 등급, 전공, 외국어 능력, 인턴경험,

#### | 각주 |

1) 류지영·신동준(2014), 『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』, 『HRD Review』, 17(2), 166-184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


KRIVET 모바일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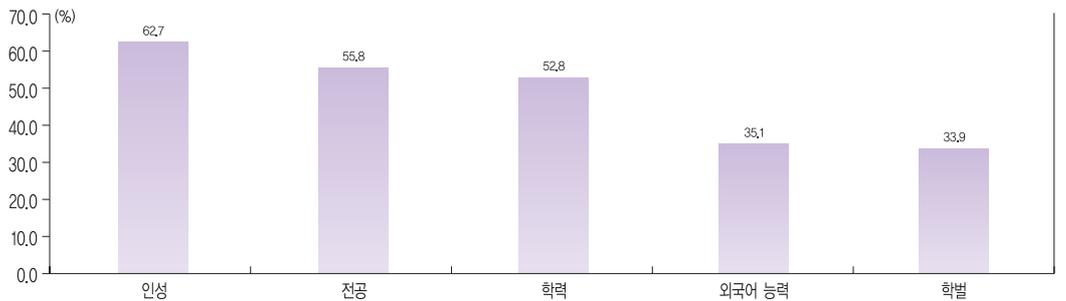
경력, 인맥, 인성, 외모)의 취업 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, 그중 4점(중요했다)과 5점(매우 중요했다)에 응답한 비율로 분석함.

- 취업 시 외국어 중요도: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, 4점(중요했다)과 5점(매우 중요했다)은 '높음', 1점(전혀 중요하지 않았다)과 2점(중요하지 않았다)은 '낮음'으로 구분하여 분석
- 토익 점수: 조사 시점에서 2년 이내로 취득한 점수이며,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함. 토픽스와 토픽(BT) 점수만 있는 경우, 토픽스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를 활용하여 토익 점수로 환산
- 업무 수행 시 외국어 활용도: 현재 일자리에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, 4점(조금 요구된다)과 5점(많이 요구된다)은 '높음', 1점(전혀 요구되지 않는다)과 2점(거의 요구되지 않는다)은 '낮음'으로 구분하여 분석

### 03 채용도구로서 외국어 능력의 적정성

#### | 취업 시 외국어가 중요한 직장일수록 취업자의 토익 점수가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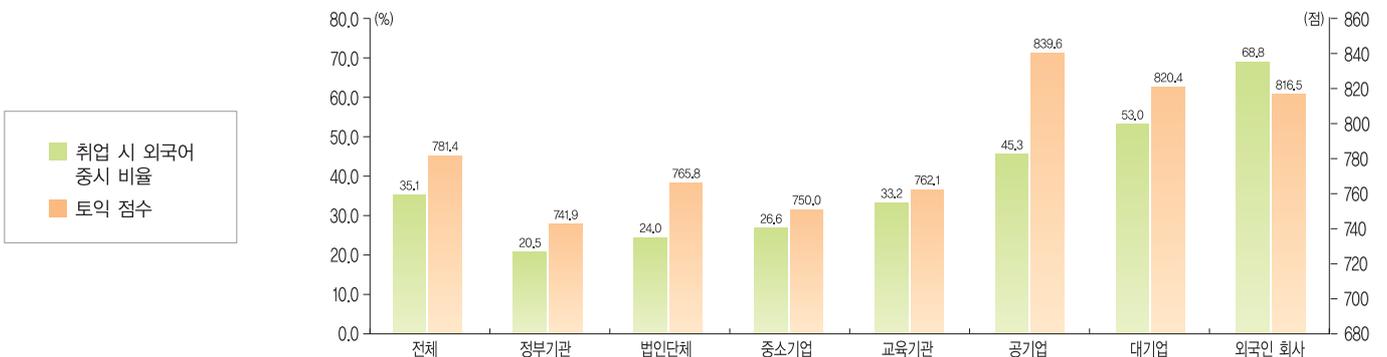
- 현 일자리 취업에 인성이 중요했다고 동의한 비율은 62.7%이고, 외국어는 35.1%로 인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.
  - 전공은 55.8%, 학력은 52.8%, 학벌은 33.9%가 취업에 중요했다고 동의함.
  - 취업을 앞둔 대학생 입장에서는 외국어가 인성, 전공, 학력, 학벌보다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외국어 공부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됨.



[그림 1] 취업요인별 중시 비율

| 주 |  
12개 항목 중 중시 비율이 높은 5개 항목만 제시함.

- 직장별 취업 시 외국어 중시 비율을 살펴보면, 외국계 회사가 68.8%로 가장 높음. 그 다음으로 대기업 (53.0%), 공기업(45.3%), 교육기관(33.2%), 중소기업(26.6%), 법인단체(24.0%), 정부기관(20.5%) 순으로 높음.
-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직장일수록 대체로 토익 점수가 높음.
  - 다만 공기업과 법인단체는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비율에 비해 예외적으로 토익 점수가 높게 나타남.



[그림 2] 직장 유형별 취업 시 외국어 중시 비율 및 토익 점수

|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직장일수록 업무 수행 시 외국어 활용도가 높음.

- 4년제 대졸자 정규직 근로자의 38.1%가 업무 수행 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함.
  - 직장별로는 외국계 회사가 73.4%로 가장 높고 대기업(50.0%), 교육기관(37.1%), 공기업(35.4%), 중소기업(33.2%), 법인단체(27.7%), 정부기관(20.6%) 순으로 높음.
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직장일수록 대체로 업무 수행 시 외국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.
  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직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토익 점수가 높고 업무에 외국어가 활용되는 비율도 높아, 채용도구로서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.
  - 다만 공기업 정규직은 토익 점수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 외국어가 활용되는 수준은 낮음.
  -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, 최근 공기업에서 무서류전형 등의 열린 채용이 시도되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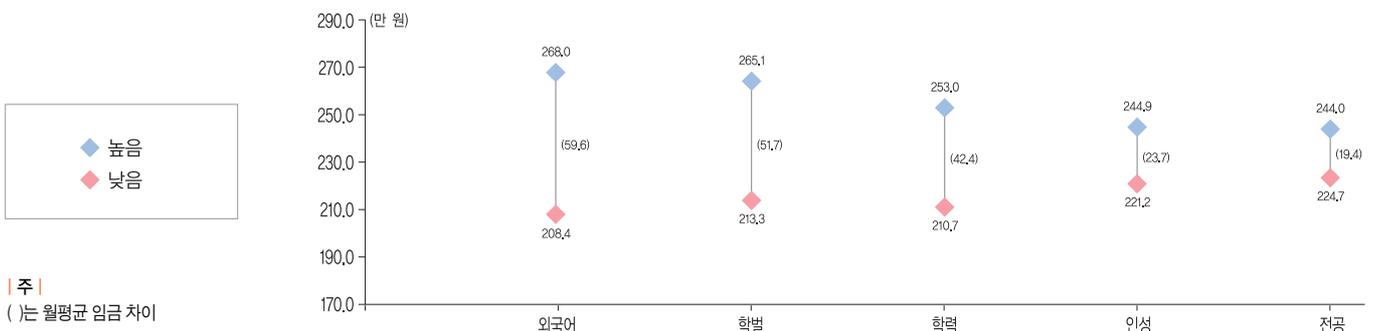


[그림 3] 직장 유형별 취업 시 외국어 중시 비율 및 업무 시 외국어 고활용 비율

04 취업 시 외국어 중요도와 임금

|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경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이 60만 원 더 많음.

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이 중요했던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원으로, 학벌, 학력, 인성, 전공이 중요한 경우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.
  - 취업 시 학벌이 중요한 경우 월평균 임금은 265만 1천 원, 학력은 253만 원, 인성은 244만 9천 원, 전공은 244만 원임.
  - 취업 시 중시 비율이 높았던 인성이나 학벌보다 외국어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.
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임금 차이는 59만 6천 원임.
  - 학벌은 51만 7천 원, 학력 42만 4천 원, 인성 23만 7천 원, 전공 19만 4천 원의 임금 차이가 남.
  - 임금 차이도 취업 시 항목별 중시 비율의 순서와는 상이함.
  -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영어 스펙을 쌓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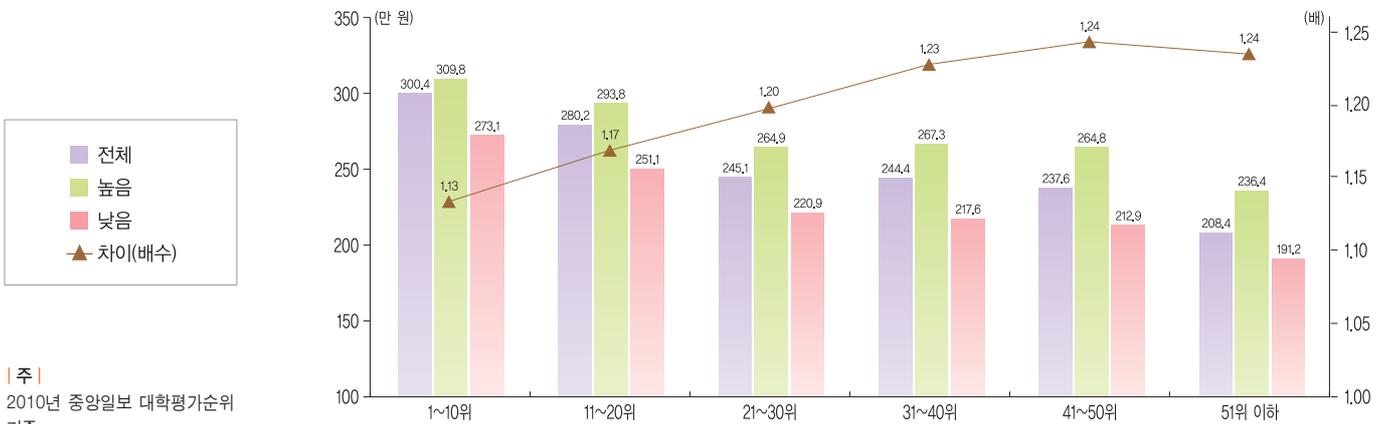


[그림 4] 취업요인별 중요도에 따른 월평균 임금

주 | ( )는 월평균 임금 차이

대학서열이 낮을수록 취업 시 외국어 중요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.

- 대학 서열별로 살펴보면, 취업 시 외국어가 중요한 경우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 차이가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더 커짐.
  - 1~10위권 대졸자의 경우, 취업 시 외국어 중요도가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중요도가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월평균 임금이 1.13배 높고, 대학 서열이 낮을수록 격차가 확대되어 1.17배(11~20위) → 1.20배(21위~30위) → 1.23배(31~40위) → 1.24배(41위 이하)임.
  - 이는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주당 2시간 정도하지만 영어 공부는 4시간을 하며, 연간 총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외국어 교육에 투자하는 원인으로 해석됨(류지영 · 신동준, 2014).
- 특히 21~50위권 대졸자는 취업 시 외국어가 중요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,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취업 시 외국어를 중시하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1~30위권 대졸자가 264만 9천 원, 31~40위권은 267만 3천 원, 41~50위권은 264만 8천 원으로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음.



[그림 5] 대학 서열별 취업 시 외국어 중요도에 따른 월평균 임금

주 |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 기준

05 시사점

-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 시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.
  - 취업 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직장에서 외국어 능력이 높은 사람을 뽑고, 외국어의 업무 활용도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.
  - 그러나 외국어 성적 이외에 대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영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음.
  - 외국어 이외의 핵심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기준을 다양화하여 외국어 공부에 과잉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- 대안적 채용수단으로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『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(K-CESA)』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 - 기업의 채용 기준이 취업준비생들의 교육 및 훈련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취업준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 은 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